

[문제]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한 (가)와 (나)에서 서술자의 시선을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를 (다)에 근거하여 설명한 후, (다)의 관점에서 (라)의 논리를 요약하고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쓰시오.(1200자, 100점)

(가)

왕은 삼문에게서 국새를 받으시와 수양대군에게 전하신다.

시립*한 사람들 중에서는 느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한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비록 밖에서는 왕의 선위*를 주장하던 무리라도 손에 옥새를 들고 서 계신 왕을 우러러 뵈옵고 그 심사를 미루어 볼 때에는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었다.

수양대군은 이마를 조아려 세 번 사양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일어나 옥좌 앞에 꿇어앉아 왕의 손에서 국새를 받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부복*하였다. 수양대군도 마음이 설레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으나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였다. 손에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옥새가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꿈이 아니라야 한다.

-이광수, <단종애사(端宗哀史)>에서

*시립(侍立): 옷어른을 모시고 섬.

*선위(禪位):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부복(俯伏):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나)

내가 못할 일을 했는가? 신왕은 몇 번을 속으로 자문하였다.

그러나 거기 대한 대답은 명료히 그의 마음에 일었다.

—아니로다. 천상천하 아무데를 내놓을지라도 추호 부끄러운 데 없다. 다만 조카님의 부탁과 같이 이 백성을 내 힘으로 넉넉히 안락되게 하며, 이 땅을 기름지게 키우는 데 성공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문제뿐이로다.

온 힘을 다 쓰자. 뼈를 부수고 몸을 갈아서라도 조카님의 뜻에 봉답(奉答)하고 또 어린 마음에 고통을 받으시며 물려서신 조카님을 이후 마음과 몸이 아울러 평안하시도록 온 힘을 다 쓰자.

신왕은 굳게 마음에 결심하였다.

-김동인, <대수양(大首陽)>에서

(다)

경험, 지식, 정보 등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인지적 틀 또는 개념적 구조를 스키마(schema)라고 한다. 스키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공백을 메워 의미를 더 완전하게 하거나 명료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 스키마는 동화와 조절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변화된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도식에 맞추어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고, 조절은 기존의 도식이 새로운 정보를 설명하기에 부적합할 때 도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스키마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스키마, 그중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스키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사회적 대상을 단순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개인의 특성보다는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절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스키마의 이러한 부작용은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스키마는 기압이 조류의 자유로운 비상을 한편으로는 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라)

도덕적 의미에서 증거의 확실성은 논리적으로 개념화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이유에서 주심 판사와 함께, 지명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보조자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그들이 함께 재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법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재판관의 임무는 사실의 확인뿐이다. 범죄 수사가 능력과 기술을 요한다면, 또 수사 결과로 얻은 증거물의 제시가 명확하고 정밀할 것을 요한다면, 이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단지 간단한 일상적 상식만으로 충분하다. 재판관은 유죄 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 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는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신분의 차이로부터 야기될 불만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재판에서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갖는 우월감도, 하류층이 상류층에 대해 갖는 질시감도 작용할 여지가 없다.

다만 어떤 범죄의 범인과 피해자가 다른 신분에 속해 있는 경우, 재판관의 절반은 피고인과, 다른 절반은 피해자와 같은 신분에 있는 자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적 이해(利害) 사이에 세심하게 균형을 잡아주면 사물의 실상이 왜곡됨을 막고, 오직 법과 진실의 소리만 남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의심스러울 경우 일정 수의 배심원들을 기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기피권을 제약 없이 사용할 권한을 준 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는 스스로 형을 선고한 셈이 된다.